

내달 6일 개통 목포 해상케이블카 교통대책 “준비 끝”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완료...교통종합상황실 시험 가동 본격 돌입
북항권·고하도권 주차장 확보 등 교통체증 해소 막바지 준비 분주

목포시가 다음달 6일 해상케이블카 개통에 대비해 추진해온 각종 교통대책들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다.

특히 시는 이달 초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 사업을 완료한데 이어 지난 14일 교통종합상황실 설치를 마무리하고 시험가동에 들어갔다.

시설 투자와 함께 그동안 목포시가 가장 심혈을 쏟아온 교통대책 분야는 주차 공간 확보이다. 교통행정과는 마지막까지 한 면의 주차장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다.

이번에 노상주차장 5개소 65면을 추가로 확보해 이달 말까지 조성을 마칠 계획이다. 옛 초원호텔 앞 10면, 장성장 골목입구 5면, 트윈스타 한복거리 30면, 동명장 모델 앞 6면, 서남권수산물유통센터 앞 14면 등이다.

또 임시주차장으로 홍일중·고내 90면, 덕인중 고내 70면, 신안교육청 교직원 전용주차장 50면 등 210면의 임시주차장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금까지 확보된 주차장 현황에 따르면 북항권이 총 10개소에 2041면(대형 99, 소형 1942대)으로 가장 많다.

구체적으로 북항스테이션 453면, 북항광장 주차장 103면, 노을공원 주차장 163

면, 목포해양수산복합센터 210면, 해양대 학교 갯길 주차장 80면, 태원여객 차고지 12면 등이다.

고하도권은 고하도 스테이션 395면을 비롯해 국립생물자원관 176면, 고하도마을 주차장 48면, 고하도 목화밭 주차장 13면, 신항교차로 갯길 35면 등 6개소 672면(대형 60, 소형 612)이다.

또 한호·유달동 등 원도삼권에는 항동버스 공영주차장 20면, 해안 공영 46면 등 모두 16개소에 750면(대형 53, 소형 697)이 확보됐다.

특히 목포시는 외지에서 목포시로 들어오는 차량들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고하대로·백년대로·영산로·해안로·통일대로·후광대로 등 주요 간선도로에 지능형교통체계(ITS)를 구축했다.

사업비 20억원이 투입된 ITS는 교통관제 CCTV 6식, 도로전광판 4식, 교차로 감시카메라 16식, 교통정보 수집시스템 11식 등의 시설을 갖췄다. 이들 시설에서 수집된 정보는 목포시 민원실 3층에 마련된 목포시 CCTV 통합관제센터로 전송돼 상황별로 대처하게 된다.

이와 함께 북항공영 주차장 내에 교통종합 상황실이 설치돼 운영된다. 다음달 6일 개통에 맞춰 매일 7명이 근무한다.



목포시가 해상케이블카 개통에 대비해 사업비 20억원을 들여 고하대로 등 주요 간선도로에 지능형 교통체계(ITS)를 구축했다. 사진은 통합관제센터에 교통정보가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있는 모습.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이들은 현장근무자 배치와 근무상황을 감독하고 해상케이블카 주변 교통상황을 전파하며 도로전광판·신호기 제어 등을 관리하는 일을 맡는다.

또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는 1일 116명(2교대)의 교통통제 인력이 11개 주요통제 지점에 배치된다. 이들은 주차

안내와 불법 주정차 방지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이밖에도 시는 중앙분리대 철거 좌회전 대기차선 확보, 신호체계 개선, 일방통행 전환 등 교통상황 개선에도 힘을 쏟았다.

이상호 목포시 도시건설국장은 “남은 15일여 동안 교통대책 사전 예방연습, 노

후차선도색 및 주행유도선 표시, 근무자 편성 및 교육, 교통 편의시설 설치, 지능형 교통정보센터 운영 등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도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목포사랑운동 참여하세요”
어린이집연합회 캠페인 전개



“목포사랑운동에 함께 참여합니다.”

목포시어린이집연합회 회원들이 지난 14일 목포여객선터미널 일원에서 관광객과 주변 상인을 대상으로 목포 사랑운동 캠페인을 전개했다. <사진>

이날 캠페인에는 지역 어린이집 원장 50여명이 참여해 여객선터미널을 찾은 관광객에게 열음생수를 나눠주며 주요 관광지를 소개했다.

또 항동시장 주변상가 100여개소를 방문해 상인들을 상대로 깨끗하고 친절한 상가 만들기에 함께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창섭 목포시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목포가 누구나 다시 찾고 싶은 아름다운 도시가 되는데 함께 힘을 모을 수 있어 뿌듯하다”며 “어린이집 원아들도 질서를 잘 지키고 나눔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보살피겠다”고 말했다.

/목포=김준석 기자 kjs0533@

목포치매전담요양시설 신축사업 무산 위기

위탁운영자 3차 공모도 신청자 없어 국·도비 반납해야할 판

목포시가 추진 중인 치매 전담요양시설 신축사업이 무산(사업권 반납)될 위기에 처했다.

목포시가 지금까지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위탁 운영자를 공개모집했지만 수탁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다.

연내에 위탁자 선정, 부지 기부체납, 설계 등 구체적인 업무들이 진행되지 않으면 2017년 지원받은 국·도비를 반납해야한다. 문제는 이 같은 절차들을 남은 4개월 만에 진행할 수 있는지가 시가 지배적이다.

목포시에 따르면 치매전담 요양시설은 요양원 70명과 주야간보호 40명 규모로, 사업비는 요양원이 23억4400만원, 주야간 보호시설이 4억6600만원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6월과 8월 두차례에 걸쳐 목포시 소재 사회복지법인, 재단법

인, 의료재단, 지방의료원 등을 대상으로 운영법인을 공개 모집했으나 신청자가 없어 무산됐다.

지역에서 이와 관련 현재 목포시가 관리·감독하고 있는 8개 사회복지시설이 목포가 아닌 무안과 영암지역에 위치한 점을 고려해 3차 공모 시 인근지역의 사회복지·의료법인에게도 참여기회를 줘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다.

이에 목포시 노인장애인과는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시는 3차 재공고 시 신청 자격을 목포시를 포함한 인근 지역에 소재한 사회복지·의료법인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시의회 보고를 마쳤다.

하지만 시의회는 지난 3월말 1차 추경에서 “치매전담요양시설 신축과 관련, 위탁 운영자 모집은 기존 공개모집 공고 시 신청자격과 동일하게 추진하라”는 권고 조항

을 달아 예산을 통과시켰다.

결국, 시는 이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3차 공고를 내고 지난 5일부터 13일까지 수탁자를 모집했지만 단 한건의 문의도 없었다.

3차 공모마저 무산되면 지역에선 “사업권 자체를 반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무안의 A시설 관계자는 “시의회 주장대로 공공의료 차원에서 목포시의료원에서 운영하는 게 맞지만 적자가 볼 보듯 뻔하고, 게다가 사회복지시설인데 적자를 보전해 주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 박았다.

B시설 관계자는 “치매시설은 일종의 기피시설로 목포시 관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어차피 무안에 건립된다 해도 주 이용객은 목포사람들이다. 더욱이 법에 반하는 일도 아니다”면서 “시의회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삼향천 생태·환경 목포시 자체 조사 눈길 생태하천 기능 전환 모색키로

목포시가 삼향천에 대한 생태·환경조사에 나선다.

특히 이번 조사는 용역을 의뢰하지 않고 시 자체 인력 풀을 활용하는 첫 시도여서 눈길을 끈다.

석현동-육암동에 이르는 총 연장 2.3km의 삼향천은 지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134억(국비 68억 포함)원이 투입돼 조성된 도심 속 유일한 친수공간으로서 그동안 재해·방재기능으로 활용돼 왔다.

하지만 급속한 생활권 변화로 주변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 등이 들어서면서 시민들이 즐겨 찾는 생태하천으로의 기능전환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목포시는 “하천 내 생태계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자체 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하수와 하천정비팀장 등 8명이 투입돼 이달부터 12월말까지 5개월 동안 진행된다.

조사팀은 먼저 시민 친화적인 삼향천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삼향천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다.

또 삼향천 형성과정과 특징에 대한 자료 축적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하천 내 서식 생물 종류 등 현황조사와 함께 보존방향도 제시할 계획이다.

주변 환경요인 분석 등을 통해 제기된



목포시는 앞으로 5개월동안 이용객 여론조사와 함께 각종 현황 조사를 거쳐 생태·환경 실태보고서를 작성해 삼향천을 생태하천으로 전환한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담은 ‘삼향천 생태·환경 실태보고서’도 발간한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맛의 도시 목포 홍보 SNS 이벤트 펼친다

목포시가 맛의 도시 목포 브랜드화 조성 사업 일환으로 맛의 도시 홍보 SNS 이벤트를 추진한다.

19일 목포시는 8월부터 12월까지 매일 한 차례씩 5회에 걸쳐 목포의 맛과 관광콘

텐츠에 대한 내용으로 주제를 선정,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목포시 계정 페이스북과 블로그를 통해

진행되는 이벤트는 매회 30명 이상을 선정해 시상하고, 목포사랑상품권·모바일 상품권·지역 특산물 등이 경품으로 제공된다.

이와 관련 시 관광과는 첫 이벤트로 8월 8일 섬의 날을 기념해 ‘맛의 도시 9미 관련 퀴즈’ 이벤트를 진행, 총 88명에게 1만원 상당의 기프트 콘을 경품으로 제공했다.

/목포=임영준 기자 lyc@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혹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